

스리 라마칸트 마하라지는 누구인가?

스리 라마칸트 마하라지[1941년 7월 8일 생]는 스리 니사르가닷파 마하라지 [1981년 9월 8일 몰]의 직제자이며, 스승과 함께 19년을 보냈다. 그는 아드와이타(Advaita), 곧 비이원론을 가르치는 인도의 영적 스승이며, 나브나트 삼쁘라다야(Navnath Sampradaya)의 인쩌기리 지파支派에 속한다.

라마칸트 마하라지는 (봄베이에서 태어나 마하라슈트라 주 남부의) 시골지역 폰다가트(Phondaghat)의 가드게사칼 와디(Gadgesakhhal Wadi)에서 자랐다. 1965년에 그는 니사르가닷파 마하라지의 명에 따라 봄베이의 일류대학 엘핀스톤칼리지에 진학한 데 이어, 1972년에 봄베이대학교를 졸업했다(역사학/정치학 석사). 1976년에는 봄베이의 싯다르타 법과대학에서 법학사(LLB) 자격을 얻었다. 1970년부터 은행업계의 법무 파트에서 줄곧 근무했고, 부장이던 2000년에 은퇴했다.

그는 안비타 사완트(Anvita Sawant)와 결혼했는데, 그녀도 스리 니사르가닷파 마하라지의 오랜 제자이다. 그들은 아들 둘을 두었다.

1962년, 라마칸트 마하라지는 친척들을 통해 미래의 자기 스승인 스리 니사르가닷파 마하라지를 소개받았다. 스승과 함께 몇 달을 보낸 뒤 1962년 10월 2일에 남 만트라, 곧 구루 만트라(Guru Mantra)를 받았다. 그때부터 니사르가닷파 마하라지의 대담에 충실히 참석하면서 정기적으로 가르침을 들었다. 그리고 1981년 9월 8일, 스승의 대삼매(Mahasamadhi) 때도 곁을 지켜다.

지난 10여 년간 스리 라마칸트 마하라지는 마하라슈트라 주 나시크의 나시크로드(나시크 동부 지역)에 있는 아쉬람에서 세계 각지에서 오는 학인學人·제자·헌신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소개하고, 때에 따라서 그들을 인쩌기리 나브나트 삼쁘라다야 계보에 입문시켜 왔다.

마하라지는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저의 과거와 제가 어디 출신인지를 압니다. 저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모두 저의 스승이신

스리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님 덕분입니다.”

인찌기리 나브나트 삼쁘라다야 계보

나브나트 삼쁘라다야 계보의 기원은 닷따뜨레야(Dattatreya)까지 천 년 이상 거슬러 오른다. 나브나트[아홉 스승] 계보의 한 지파가 결국 스리 바우사헵 마하라지가 창설한 인찌기리 나브나트 삼쁘라다야(Inchegiri Navnath Sampradaya)가 된다. 이것이 스리 라마칸트 마하라지에 이르는 직선 계보이다.

이 계보는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스승들이 모두 매우 겸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는 대신 지지와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전념했다. 스리 바우사헵 마하라지, 스리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 스리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는 모두 보통 사람들이었다.

지지(jnana)와 헌신(bhakti)의 단일성(Oneness)이 이 계보의 가르침에서 핵심을 이룬다. 헌신은 지지의 어머니이다. 스승에 대한 치열한 헌신에 의해서만,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숭배함으로써만 진아 깨달음의 지지가 드러날 것이다. 결국 지지와 헌신 사이의 전적인 통일이 있게 된다.

이 계보는 스승이 제자들을 스승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스승 중심적이다. 스승은 마스터키(Master Key)인 구루 만트라[남 만트라]로써 제자를 입문시킨다. 만트라·스승·입문은 서로 불가분이다. 스승에 대한 믿음과 완전한 수용, 그리고 구루 만트라가 필수적이다. 이 계보의 모든 스승들은 같은 만트라를 염해 왔다. 그 신성한 남(Naam)을 받으면 우리가 이 계보 스승들의 도움과 힘을 받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스승, 곧 사드구루(Sadguru)와 하나가 된다. 라마칸트 마하라지는 말한다. “구루 만트라를 염하는 것은 참된 진아지로 이어지며, 그것은 그대가 본래적 상태로 돌아가는 단 하나의 참으로 효과적인 길입니다.”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는 (자신의 깨달음에 관하여) 모든 공부를 바우사헵 마

하라지에게 돌렸다.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도 마찬가지로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에게 공을 돌렸다. 라마칸트 마하라지도 자신의 스승인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에게 모든 공을 돌린다. 전체 계보를 곧장 관통하는 매우 강한 연결성이 있다. 그래서 라마칸트 마하라지는 “저는 하나의 해골, 제 스승님의 한 꼭두각시일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 계보에서는 우리가 그대의 ‘보이지 않는 현존’에게 직접지를 주지, 그 몸-형상에게 주지 않습니다.”라고 이 스승은 말한다. “이 지知는 자연발로적 지知이지 책에서 얻은 지知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발로적 지知입니다. 말은 다르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즉, 무아인 진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知는 희유한 지知이다. 이 스승들은 실재에 대해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의, 제자 안의 실재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찬란한 스승들의 오랜 계보에서 나오는 이 직접지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남 만트라이다.

이 가르침은 전체 계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견고하고 강하다. 순수하고 굉장히 강력하다. 이 스승들은 모든 비밀을 함께 나눈다. 숨겨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늘 무료로, 아무것도 기대함이 없이 함께 나누던 공개적 진리이다. 우리가 본래 가진 재산, 진리인 그 지知를 상업적으로 남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바우사헵 마하라지가 말했다. “우리 계보에서는 (가르침의 대가로) 헌신자들로부터 어떤 돈도 받지 말아야 한다. 돈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남 만트라를 망치게 될 것이다. 이 삼브라다야(전통, 계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바우사헵 마하라지(Bhausahab Maharaj, 1843-1914). 스리 라구나트브리야 마하라지에 의해 입문했으나 그의 사드구루는 스리 구루링가장감 마하라지였고, 그는 스승을 깊이 사랑했다. 우마디(Umadi)의 성자로 알려진 바우사헵 마하라지는 재가자였다. 제자가 많았는데, 몇 사람만 꼽아본다면 스리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 스리 구루데브 라나데(Shri Gurudev Ranade), 스리 암부라오 마하라지(Shri Amburao Maharaj) 등이 그들이다.

그의 길은 명상·무욕·포기를 닦는 것이며, 개미의 길(Ant's Way)로 알려져

있다. 그는 수행 방편으로 지知보다는 명상을 주로 강조했다. 그것은 많은 제자들이 시골 출신으로 무식했기 때문이다. 바우사헵 마하라지는 실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큰 고초를 감내했다. 18년 동안 휴식 없이 숲속에 서서 수행했고, 한 번에 열두 시간씩 명상했다. 그는 신적 이름(남 만트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것을 골수에 사무치게 하라. 명상을 할 때는 늘 마음 속에서 신적 이름을 치열하게 염하라.”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Siddharameshwar Maharaj, 1888-1936). 솔라뿌르의 빠트리(Pathri)에서 태어났다. 바우사헵 마하라지는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를 처음 보고 이렇게 선언했다. “이 사람은 큰 복이 있다.” 그리고 바로 당일로 그를 입문시켰다.



그는 7년간 스승과 함께했다. 스승의 입적 후 그는 진아 깨달음을 얻겠다는 결의가 워낙 굳세어,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고행과 함께 치열한 명상을 시작했고, 명상 도중 워낙 비범한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감로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어 주위의 공기를 모두 향기롭게 했다고 한다.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는 계보의 다른 많은 스승들과 같이 직업과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재가자 신분을 하나의 장애로 보기보다는 무아적인 자

세와 초연함을 닦을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했다.

그는 수행을 통해, 명상은 최종적 실재에 도달하는 과정의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계보의 가르침을 ‘개미의 길’에서 새의 길(Bird's Way)로 더 진전시켰다. 실재는 분별과 무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내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의 기만적 형상을 깨닫고, 그런 다음 그것을 나날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 진아에 대한 지지를 지적으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결코 전적으로 आरोसा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활동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영적인 가르침은 앞서 자기 스승의 그것처럼 실용적인 가르침이었다.

2년 후, 그가 사랑하던 스승 바우사헵 마하라지가 그에게 환영(幻影)을 나투어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대는 최종적 실재에 도달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여 지지와 현신을 전달했다. 그는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입문시켰다고 한다.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이 비범한 스승을 통해 수십 명이 깨달았다고 믿어진다! 여기에는 가나빠뜨라오 마하라지, 바이나트 마하라지,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 란지트 마하라지, 무벤 까드싯데스와르 마하라지, 발크리슈나 마하라지가 포함된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례들을 이용하여 실제적인 가르침을 폈다. 자기탐구·분별·무욕의 방법이 권장되었다.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는 지지가 건조하고 공허하게 머무르는 것을 막기 위해 현신과 자기 스승 공경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가르침을 담은 책 『그대가 그것이다(Master of Self-Realization)』는 영적인 고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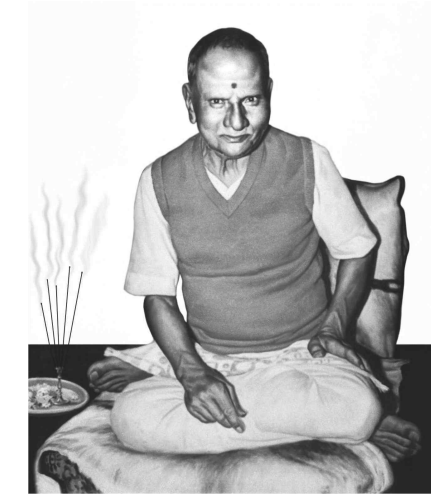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Nisargadatta Maharaj, 1897-1981). 그의 스승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가 48세로 입적하기 3년 전에 천행으로 그를 만났고, 그에게 현신했다. 놀랍게도 몇 년 뒤에는 그 자신도 진아 깨달음을 성취했다.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는 때로 무뚝뚝한, 그러면서 늘 정곡을 찌르는 직

접지로써 계보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진전시켰다. 그의 뛰어난 가르침은 많은 구도자들을 깨우쳤다. “구도자는 그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그의 유명한 책 『아이 엠 댓』을 읽고 많은 서양인 방문객들이 그를 찾아갔다.

그는 남 만트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만트라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제 스승님이 이 만트라를 저에게 주셨고, 그 결과가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이 방문객들입니다. 그것이 이 만트라의 힘을 보여줍니다.”

라마칸트 마하라지(Ramakant Maharaj, 1941-2018). 1962년에 그의 스승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에게 입문했고, 계보의 가르침을 한층 더 진보시켜 왔다. 그의 접근법은 혁신적이고 급진적이며 절대적이다. 그는 개념들을 수용하지



않고 “내가 있다”는 개념을 포함한 일체를 신속히 베어버린다. 최고의 가르침을 실제적 언어로 표현하면서 진아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을 제시한다.



이 계보 스승들은 최고의 지지를 무아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전하고 있다. 스승에게 의존하고 스승의 형상에 의존하는 것은 극력 피해야 한다. 이 스승들의 진지하고 숭고한 바람은 제자를 한 사람의 스승으로 바꿔 놓는 것이다. 여기에 인찌기리 나브나트 삼브라다야의 독특함이 있다.

무아인 진아

Selfless Self

1. 그대는 이미 깨달아 있다

마하라지: 저의 스승이신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스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스승적 본질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일체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깨달아 있는데,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니고, 몸이 아니었고, 몸으로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몸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긴 꿈입니다.

깨달음이란 ‘그 꿈 이후’를 의미합니다.

잘 듣고 내관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닌 것들을 아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본래 자리를 가리켜 보이고, 존재성(beingness-개인으로서의 존재) 이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가리켜 보입니다. 저는 ‘이전’에 대해, 곧 영靈(Spirit)이 몸과 맞물리기 전, 여러분의 자연발로적 현존(Spontaneous Presence)이 몇 겹의 환幻으로 덮이기 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성 이전에 여러분이 존재하던 방식이 깨달음입니다.

저는 제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반면 여러분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 말고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

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제 안의 보이지 않는 화자(話者)와

여러분 안의 보이지 않는 청자(聽者)는 같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환적(幻)인 개념들의 재로 덮여 있습니다. 스승이 그 재를 없애 줍니다. 그는 여러분의 내적 스승을 다시 깨워 되살아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접지(Direct Knowledge)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질문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성 이전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앎’이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불생(不生)입니다!

어떤 일도 일어난 적이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문은 몸에 기초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탄생이나 죽음도 없습니다. 존재성 이전에 여러분의 현존(Presence)이 있었습니다. 존재성이 해소된 뒤에도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그 몸의 보유자로서 있습니다.

지(知)란 지적인 지(知), 경험적인 지(知), 책에서 얻은 지(知), 문자적인 지(知), 건조한 지(知) 혹은 전해들은 지(知)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집해 온 모든 지식은, 인상과 환적인 개념들, 조건화(conditioning-인격을 형성한 환경적 영향)와 (사회적) 압력에서 나온, 몸에 기초한 지(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몸-지(知)(body-knowledge)’라는 범주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 몸-지(知)의 범주에서 나와,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과 경험을 포함한

일체가 지워져야 합니다.

환(幻)에서 여러분을 꺼내줄 깨달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은 세세한 점들을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고, 따라서 여러분을 인도해줄 수 있습니다. 환(幻)을 지우고 여러분의 힘을 되살아나게 하려면 자기탐구·명상·지(知)와 바(巴)잔

(Bhajan)의 과정을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실재를 알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몸-지知가 해소되지 않으면

실재가 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읽고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텅 빈 스크린같이 된 다음, 잘 듣고 흡수하십시오. 몸은 결코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는 것은 공개적인 사실입니다. 존재성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별개인, 여러분과 분리된, 혹은 여러분의 바깥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체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아인 진아(Selfless Self)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사드구루(Sadguru-참스승)이신 니사르가 닷따 마하라지님은 실재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대의 무아인 진아 외에는

어떤 신도, 브라만도, 아프만도, 빠라마뜨만도, 스승도 없다.

2. 영적인 공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하라지: 영적인 공부의 목적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알고, 환화를 지우고, 모든 몸-지知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공부(spirituality)의 목적은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알고,

환화를 지우고, 모든 몸-지知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지요! 인간들은 지성을 타고났으니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공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탐색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여기 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저는 행복을 원합니다”가 흔히 듣는 대답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두려움 없는 삶, 긴장 없는 삶을 원합니다.

외적인 원천에서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자신의 지_知, 여러분 자신의 자연발로적 지_知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재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자연발로적 현존이 여러분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일체가 여러분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존은 하나의 공개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현존은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평안을 원합니까? 누가 행복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연발로적 현존은 그 자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연발로적 현존은 말이 없고, 익명이고,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정체성입니다.

영적인 공부를 여러 해 하고 나니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은 건조한 지_知이고, 물질적 지_知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모든 책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_無형상이고, 여러분이 궁극적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니고, 몸이 아니었고, 몸으로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확신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명상과 자기탐구입니다. 영적인 공부는 잠시 잊으십시오. 몸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몸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사실이지요! 언젠가 그것은 매장되거나 화장될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생겨났고(탄생했고), 몸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것은 그 알려지지 않은 것 속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단순한 가르침이지요!

자연발로적 현존이 몸-형상을 하고 생겨나자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신

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말입니다. 영적인 공부는 여러분에게 고통에 직면할 용기를 줍니다. 집착과 상실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심리적 문제, 정서적 문제, 이 모든 신체적 번뇌들은 명상의 도움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좋은 지^지, 좋은 영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지가 흡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명상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존재성 이전에는 어떤 몸도, 어떤 문제도, 어떤 필요물도 없었습니다. 어떤 언어, 어떤 단어, 어떤 개념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필요 없었고, 지^지도 필요 없었고, 영적인 공부도 필요 없었습니다. 스승도 제자도 없었고, 깨달음도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도 없었고, 어떤 아내도, 남편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 자매, 친구도 없었습니다. 모든 관계는 몸과 관련됩니다. 세계는 그대의 자연발로적 현존의 자연발로적 투사물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지^지입니다.

이것은 지^지적인 접근법이 아니고,

논리적 접근법이 아니고, 예교적 접근법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현존 이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알기 위해, 실재를 알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이것이 자연발로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자기탐구, 명상 그리고 스승이 베푸는 지^지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아닌 일체를 지^지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속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새처럼 자유롭습니까.

단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스승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극적 진리이고, 궁극적 실재이며, 최종적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전능한 신입니다!

여러분은 일체이고, 일체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3. 무아인 진아

질문자: 무아인 진아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하라지: ‘자아’는 몸-지知와 관계됩니다. 그것은 몸과 함께 나온 일체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몸-지知가 해소될 때 남아 있는 그것을 우리는 ‘무아인 진아’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도 없는 진아, 환幻이 없는 진아입니다.

무아인 진아는 우리의 자연발로적이고, 보이지 않는, 익명의 현존으로서 동일시를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알려지지 않은 정체성을 가리키는 이런 모든 단어들은 그대가 일단 그 주소에 도달하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할 일이 끝났으면 내버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무아인 진아는 말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아는 몸-지知, 그리고 몸과 관련된 모든 환幻과 관계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다른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한 개인이다.” ‘어떤 사람’이라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몸-지知입니다. 자아는 몸과의 동일시, 즉 ‘나 자신’, ‘그 자신’, ‘그녀 자신’을 지칭합니다. 무아인 진아는 ‘무無’를 지칭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주시자도 없고 경험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우리의 현존이 하나의 ‘공개적인 비밀’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마: 예, 그대의 현존은 하나의 공개적인 비밀입니다. 그대의 자연발로적 현존이 몸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대는 자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대의 현존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 자신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보지 않고 늘 그대 자신의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일체가 그대 안에 있고, 아무것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질: 그래서 그것이 무아인 진아에게 하나의 공개적인 비밀이군요?

마: 그렇지요, 자아에게가 아니라 무아인 진아에게 말입니다. 일체가 무無에서 나오고, 일체가 다시 무無 속으로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 무無 속에 ‘어떤 것(有)’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대가 뭘 모를 때, 존재성 이전의 그대의

현존을 알지 못할 때는 이 무^無를 ‘어떤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존재성 이전에는 그대가

일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얹’이라는 말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대가 몸을 떠난 뒤에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것입니다. 몸을 떠난 뒤에는 그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가 무^無에서 나오고, 일체가 다시 무^無 속으로 해소됩니다.

일체가 무^無에서 나오고,

일체가 다시 무^無 속으로 해소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신을 ‘어떤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것’은 몸에 기초한 지^知하고만 관계됩니다. 사실 이 몸은 불변으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설사 그것이 ‘어떤 것’처럼 보인다 해도 실은 그것은 무^無입니다. 몸 이전에는 어떤 이름도, 모양도, 형상도 없었고, 어떤 경험도, 경험자도, 어떤 주시도, 주시자도 없었습니다.

이 공개적인 사실이 명상을 통해서 점차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세계는 그대가 한 사람의 남자나 여자이며, 그대가 태어났고 죽을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다도록 그대를 속여 왔습니다.

몸은 ‘어떤 것’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무^無입니다.

그것은 환^幻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존재성 이전에는 그대가 그대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몸을 떠난 뒤에는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그대는 몸-형상을 한 그대 자신을 압니다. 그 몸-형상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몸은 그대의 영구적인 정체성이 아니고,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이라고 여기는 이 ‘어떤 것’은—이 ‘어떤 것’이 무엇이든 간에—무^無에서 나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대가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환^幻입니다.

실재는 존재성 이전입니다.

실재는 존재성 이후입니다.

몸-형상 안의 이 생명 기간은 환^환입니다.

그것은 실재의 한 막간,

하나의 중단, 하나의 교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스승이신 니사르가닷파 마하라지님은 “그대가 실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대와 별개로는 달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재는 어디 다른 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무아인 진아 외에는 어떤 신도, 브라만도, 아뜨만도, 빠라마뜨만도, 스승도 없다.” 즉, 무형상의 그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무아인 진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아인 진아와 별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아인 진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4. 세 가지 단계

질문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기탐구, 둘째는 진아지, 셋째는 진아 깨달음이라고요.

마하라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동시에 없습니다. 사실 어떤 단계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초기에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일 뿐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상 우리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들은 하나·둘처럼 명료하거나 단선적인 것이 아니지만, 하나의 느슨한 틀로서는 유용합니다.

자기탐구는 진아지로 이어지고, 그런 다음 그 진아지는 심화된 자기탐구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다음 한 걸음 물러서는 과정, 일종의 왔다 갔다 하기와 흡사합니다. 그러나 예, 거칠게 말하면 세 가지 정해진 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간단히 표현해서, 영이 몸과 맞물렸을 때 그 인간이 출현했는데, 그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혼란 때문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몸-형상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만일 몸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자기탐구의 뿌리이고, 인간의 영원한 탐색입니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가?”를 알아내려고 애씁니다.

그 물음이 일어나는 것은, 몸-지知 이전에는 어떤 필요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자기탐구입니다.

그는 답을 찾으면서 여러 원천에서 지知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책들, 친구들, 강의, 수련회, 워크숍, (영적인) 교사들, 어쩌면 스승들에게서도 말입니다. 이런 지知를 통해 (지적인) 깨달음에 이르고, “나는 무無이다”를 알게 됩니다. 영적인 용어로 이 ‘무無’를 브라만·아트만·바라마뜨만 혹은 신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도자가 발견한 이 지知는 문자적 지知입니다.

몸은 하나의 물질적 몸이고, 그 몸이 수집해 온 지知도 물질적 지知입니다. 이 지知는 존재성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위적 원천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몸-지知입니다. 책에서 얻은 지知 혹은 전해들은 지知는 지知(Knowledge)가 아닙니다. 지知는 자연발로적 진아지이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대는 브라만이지 몸이 아니라고 하는, 그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知가 흡수될 때 이 지知는 확신으로 화합니다. 그대는 몸이 그대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결론에 오래 전에 도달하여, 그 사실을 지적知的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아십시오!” 여기서 저는 제 스승님이 저와 함께 나누신 그 지知를 함께 나누고, 그대의 실재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대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대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知가 확신으로 화할 때,
그것은 진아지가 됩니다.

진아지란, “나는 몸이 아니다”라는 지지를

그대가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대는 영적인 책들과 기타 2차적 원천에서 그대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지지가 흡수될 때,

그것이 진아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요컨대 자기탐구가 진아지로 이어집니다. 그대는 지성과 어떤 단어들의 도움으로 “나는 몸이 아니고, 브라마만·아트만·빠라마뜨만·신 등으로 불려왔다”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자적 지지일 뿐입니다. 이 문자적인 지지가 흡수될 때,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도, 경험자도, 주지도, 주시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진아 깨달음의 단계에서는

그대가 세계에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성 이전에 그대가 있던 방식이

진아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질: 그래서 그 과정이 단선적이지 않은 거로군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럴 때는 진아지가 우리를 심화된 자기탐구로 돌아가게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탐구에서 진아지로 부단히 나아가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늘 점점 더 많은 지지가 드러나고, 더 많은 것이 발견됩니다.

마: 제가 말했듯이, 지지란 진정한 의미에서 그대 자신을 아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는 몸-형상의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돕기 위해 스승이 ‘명상이라는 약’을 처방하여 모든 신체적·영적·정신적·에고적 문제를 극복하게 합니다. 강력하고 깊은 집중의 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연발로적 확신이 일어날 것이고, 실재가 그대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놀라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체험,

어떤 극적이고 마법적인 체험 말입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그대는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나는 몸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몸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비록 그대가 몸 안에 살고 있는 해도, 그에 상관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개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명상은 완벽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체가 그대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 있지만, 묻혀 있고, 재에 덮여 있고, 환하고 개념의 층에 덮여 있습니다. 개념들의 그 풍선을 터뜨리십시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자연발로적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5. 그대는 몸이 아니라 몸의 보유자이다

질문자: 당신께서는 우리가 몸-형상의 우리 자신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입니까?

마하라지: 그대의 존재는 자연발로적 존재, 자연발로적 현존입니다. 그대의 자연발로적 현존은 말이 없고, 보이지 않고, 익명인, 정체불명의 정체성입니다. 세계는 그대의 자연발로적 현존에서 투사됩니다.

그대의 자연발로적 현존은 말이 없고, 보이지 않고,

익명인, 정체불명의 정체성입니다.

세계는 그대의 자연발로적 현존에서 투사됩니다.

그대는 전적으로 불생不生이지만, 그대는 “나는 태어난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개념이고, 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대는 불생不生입니다!

그대가 궁극적 진리입니다!

저는 그대 안의 말 없는, 보이지 않는 청자의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대 안의 말 없는,
보이지 않는 청자의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 진리입니다.

그것이 궁극적 진리인데, 그것은 불생입니다. 그것은 죽음과 탄생을 모릅니다. 존재성 이전에는 그대가 죽음과 탄생에 대해 몰랐습니다.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영이 몸과 맞물렸을 때, 그 존재성이 모든 개념과 환상들과 함께 생겨났습니다. 그대의 아버지·어머니·형제자매 등은 모두 이 몸의 느낌에서 나온 몸 관계들입니다.

그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 전능한 신이 여기나 저기에 계시다. 이 종교나 저 종교, 이 교회나 저 사원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다.” 몸의 느낌이 없었을 때는 어떤 존재성도 없었습니다. 존재성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타자도, 어떤 관계도. 아무것도.

그대는 몸이 아니고, 몸이 아니었고,
몸으로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공개적인 사실입니다.

여기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그대의 부모님이 그대에게 말했습니다. “이 몸은 ‘소년’이라고 하고, 저 몸은 ‘소녀’라고 한다.” 그대는 그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분들이 그대에게 하나의 이름, 예컨대 ‘라비’, ‘시파’, ‘수전’, ‘폴’ 등을 주었고, 그대는 이의 없이 그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나 여자에서 중년으로, 노년으로 그 몸의 단계들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대는 “나는 하나의 이름이 붙어 있는 이 몸일 뿐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많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대는 여기 왔으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멈춰서 내면을 보십시오! 그대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십시오! 환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실재가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탐구를 하십시오! 분별력을 사용하십시오! 일체가 그대 안에 있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그대가 궁극적 실재이고,
궁극적 진리이며, 전능한 신입니다.”

그대에게 엄청난 파워와 힘이 있지만,

그대는 자신의 파워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형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그대가 실재이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스승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적인 공부는 그만두고라도, 그대는 몸이 그대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정한 햇수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그대의 실재를 그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은 마하라지님, 저희가 스승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실재에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러나 처음에는 환상을 해소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까?

마: 그렇지요, 처음에는 그 환들을 해소하고 실재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보세요, 그대는 그 모든 개념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컨대 “나는 남자다, 혹은 여자다”, “나는 이 종교에, 혹은 저 종교에 속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죄와 덕, 구원과 저주 등 개념들의 세계 안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지옥·천당·해탈(moksha)·발현업發現業(prarabdha-금생에 발현되는 업)·탄생·죽음 등 끝없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전과 책에 나오고, 구루·교사·스승들에게서도 나옵니다. 도처에 환이 있습니다! 그대가 속박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수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실은 그대는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는 속박되어 있지 않고, 새처럼 자유롭습니다.

이 모든 개념들은 몸과 함께 왔습니다.

존재성 이전에는 어떤 개념도 없었습니다.

어떤 ‘않’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이나 평안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존이 몸과 접촉한 뒤, 모든 개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요구 사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붙들고 있느니, 왜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자문해 보지 않습니까? 그대는 잠자리에 들 때 잠드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대는 말합니다. “잠자게 해주세요. 나를 방해하지 마시오.” 죽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자기탐구를 하십시오! 그대는 매일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지 모릅니다. 몸이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은 몸들은 나중에 매장되거나 화장됩니다.

몸은 사라질 것이고,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디도 가지 않습니다.

그대는 몸이 아닙니다.

그대는 몸의 보유자입니다.

그대는 몸이 아니라 몸의 보유자입니다. 그대는 영靈이고, 몸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몸은 살과 피와 뼈라는 외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그 몸을 통해서 누가 행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아주 나쁜 생각들이 있다. 나는 어떤 흥한 꿈을 꾸다”와 같은 생각들을 누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말이 없고, 보이지 않고, 익명인, 정체불명의 정체성입니다.

질: 그에 대해 숙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다수의 영적인 책들을 읽었고 명상도 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교사를 방문하거나 샷상(Satsang)에 참석할 때 그 경험은 저를 상당히 고양시킵니다. 거기서 그 순간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은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 느낌이 지속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 오케이, 그러니까 그대는 책을 좀 읽었고, 어떤 스승들의 가르침을 들었고, 명상도 조금 했군요. 가늠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그대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완전한 평안을 발견했습니까? 긴장에서 벗어났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행복을 가졌습니까? 만약 그 답이 ‘아니요’라면 자기탐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영구적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물질적 원인도 없는 완전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더 많은 외적 지식을 보태주는 책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다면, 잠시 쉬면서 멈추어 이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지는 나

에게 행복과 충족을 안겨주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이 없는가?” 그대의 자기 탐구에 충실하십시오. “내가 몸을 떠나야 할 때 이 지지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만약 그대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지지가 그대에게 평안과 행복을 안겨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 지지가 그대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지요! 그것이 지금 그대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면, 임종 때 그것이 어떻게 그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지지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 모든 책에서 영적인 공부의 이름으로 들려주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아내십시오!
그것이 자기탐구입니다.

질: 누구의 이야기(story)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 그것은 그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브라만·아뜨만·빠라마뜨만 혹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 안의 그 청자聽者, 보이지 않는 청자,
익명의 청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아인 진아,
그대의 무아인 진아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스승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님은 무아인 진아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무아인 진아와 별개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아인 진아만이 궁극적 진리, 최종적 진리입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무아인 진아 외에 어떤 신도, 아뜨만도, 브라만도, 빠라마뜨만도, 스승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희유한 지지, 깨침이
궁극적 진리가 무엇인지, 최종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대가 깨닫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대가 그것입니다!